

20181201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설교 테리 로빈슨 사제

영국성공회 관구사무소 교회와 사회 여성 부문 디렉터, 여성네트워크, 패밀리네트워크, 세이프처치위원회 멤버, 옥스포드 크라이스트처치 주교좌성당 캐논)

통역 우에다아즈코 사제

오늘 여기, 일본성공회 여성 사제안수 20년 감사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며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1998년 12월에 마가렛 시부카와 요시코 사제님이 사제로 안수 받은 이후 여러분은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나타나엘 수좌주교님, 여성데스크, 그리고 제가 여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본에 도착하여 멋진 환영과 친절한 배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축하하고, 희망과 기쁨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은 늘 중대한 역할을 짊어졌지만, 그녀들은 간단하게 잊혀지거나, 간과되어 왔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인 영국성공회는 1980년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처음으로 교회력에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을 선택하여 포함시켰습니다.

그 때 선택된 12명의 영국인들 중에 단 한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죠세핀 바토라 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19세기 여성, 특히 빈곤하여 버려진 여성들의 교육과 공중위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한 사회개혁자입니다. 처음 투표에는 거부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명부에 유일하게 그녀만이 선택되었습니다.

교회력에 포함되도록 선택된 사람들 명부에 빠진 남녀비율의 언밸런스에 대해 공식 설명은, [기념해야 할 여성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은 위원회의 책임자는 비공식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에게는 고결하다고 보여지는 행동들이 여성들에게는 자주 정신착란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불균형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여성 사제안수를 오늘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과 희망적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함께 새로운 노래를 주를 향해... 오히려 부릅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성들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사제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충분히 하느님을 섬기도록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성사제들은 파이오니아(개척자)입니다. 그녀들은 새로운 땅을 찢고 열은 여성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사제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외부인이었던 것을 그리고, 추방된 땅에서 온 이였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줄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방되었던 자이고, 또한 외부인이었던 우리 기억은 타자를 [외부인]으로 격리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체험을 이해하고, 세상의 구석에 잊혀져 있는 공동체와 연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이야기는 추방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국의 땅에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고향으로의 귀국을 소망하며, 슬픔도 한숨도 없이 기쁨과 환희에 찬 시대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의 일부가 되어 우리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말씀 중 하나인,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은 예루살렘 신전붕괴 후, 고대 유대왕국에서 강제로 연행된 바빌론 포로가 된 사람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예언자 이 부름은 희망과 격려로 충만합니다. [메마른 땅과 사막아,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용기를 내어라]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추방의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와 시대를 통하여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은 이 때부터 영원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 텅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던 여성들에게도 천사가 건넨 말이 [두려워 말아라] [어서 가서 전하여라] 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 성공회에도 여성이 안수를 받기까지의 여정을 포함하여 많은 관습의 변화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거나 서두르실 때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계성공회 사무국에는 [교회와 사회 여성위원회] 디렉터로 일할 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남녀 간 공정에 대한 화제는 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의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간의 공정에 대한 일은, 극적인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챌린지 도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곧 뭔가를 잃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믿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림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길로 향하는 여정이 늘 익숙하지 않다고 느낄뿐더러, 위협받고, 미치게 한다고 까지 느끼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사람이 깊은 변화로 가려고 할 때 무방비가 되어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확신을 내려 놓으면 새로운 가능성에 가득한 뭔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남자아이의 이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아이는 해변가에서 조개껍질을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잔뜩 조개껍질을 찾아 그

아이는 모을 수 있는 만큼 조개껍질을 주워서 그 작은 양손은 조개껍질로 가득 찼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온 불가사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척 예쁜 특별한 불가사리였습니다. 작은 남자아이는 불가사리도 갖고 싶었지만, 그 양손은 조개껍질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가까이에 있던 아버지를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예쁘고 특별한 불가사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양손은 조개껍질로 가득했지만, 주운 조개껍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널리 받아들여져 있지만, 우리를 울가미로 옳아 매는 지배와 종속의 방법들을. 또한 생각하고 행동해 온 지금까지의 방법들을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러 가지들 자유롭게 발견하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이나 공명심에 쌓이게 하는 힘을 갖는, 모든 통속적인 신화들이나 굴절된 신학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화해를 바라며, 인도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제일 큰 권위로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사제이며, 신학자인 사라 바헤라드는 [이 변화를 위한 일들이 거부당하고 방해 받는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유혹이란, 차가운 현실도피나 불안을 피하기 위해 늘 열광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결핍상황에서 여자나 아이들은 일상적인 노예로 부정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점점 퍼져가는 성향을 가진 성차에 의한 폭력에도 드러납니다. 환경 변화나 불법행위, 나라전체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들에 휘둘리고, 경제적으로도 또한 의사결정에서도 심하게 차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절망과 공포는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인 아닌 것]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정의와 화해의 활동들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자신을 바쳐 불안이나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는 활동을 통해 지성과 가치 있는 참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동이 아니라, 기도와 경청, 식별력을 키워,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사랑을 기반으로 예언자로 활동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 동등하게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를 포함하여,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여성들과 함께 일 하고, 또한 그 시대의 가르침과는 다르지만 여성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이 있는 곳에 찾아 가십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말을 겁니다. 그 만남 후, 이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녀가 사는 동네로 뛰어가게 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찾아와서 보게 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겠지요. 마리아가 남성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를 격려했는지 마음에 새깁시다. 성차별에 의한 행동규범이 뿌리깊게 사회에 침투해 있던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법규의 한계를 넘어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화 중에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봉사하는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10 개의 동전 중 하나를 잃고, 그것을 찾기 위해 계속 찾아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그 여인을 떠올려 주세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치유하고, 그녀들의 존엄을 회복시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신앙이 너를 고쳤다] 이 여인은 몇 년이나 따돌림 당하고, 사회집단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그녀를 둘러싼 문화에는 그 여성이 [비정상]이라고 취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예수님과 만난 결과,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라는 권한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처한 환경을 변혁시키고 행동하는 역량이 있다고 그녀를 알아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딸아 네 신앙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은 12 살의 여자아이, 아이로의 딸도 고쳐주십니다. [달리다 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자유로 해방된 것입니다. 모든 여성, 남성, 여자 아이, 남자아이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문화적인 무지를 넘어 또한 정치적 사회적인 체제를 넘고 일어서서 완전한 한 인간으로 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스스로 함께 연대하기 위해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성공회 교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환성을 지르고 있다고 보증합니다. 더 많은 여성이 과거 20 년간 안수받은 파이오니아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이든 신자든 누구에게든 주어진 생명과 각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또한 세계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미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그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나게 새 노래를 주님을 향해 부릅시다. 신나게 걸어 나가고, 다른 곡조에 맞춰 춤을 춥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가 깨닫고 격려하고, 숨기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를 향할 때, 평화에의 좁은 길, 활동을 위한 지혜, 함께 걸을 친구,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